

#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 SSBR 등 고부가 사업 확장 ‘청신호’

〈스티렌-부타디엔합성고무〉

박철완 전 상무 측 우호지분 감소  
과거와 같은 표 대결 가능성 낮아져  
3분기 영업이익 21.6% 증가 전망

금호석유화학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의 부담까지 덜면서 스티렌-부타디엔합성고무(SSBR)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0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성고무 사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한다는 분석이다.

상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다. 반기보고서 기준 금호석화의 올해 상반기 연결 누적 매출은 4조481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6816억원보다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58억원에서

3984억원으로 114.4% 늘었다.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5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주주제안을 내놓지 않은 데 이어 박 전 상무 측 우호지분까지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박 전 상무의 누나인 박은형·박은경·박은혜씨는 지난달 금호석화 보통주 17만1783주를 매각했다. 이들은 2021년 박 전 상무에게서 총 45만7200주를 증여받은 뒤 우호주주로 분류돼 왔다. 이번 매각으로 세 사람이 처분한 주식은 당시 증여 물량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금호석화는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중국발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범용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금호석화는 고부가 합성고무인 SSBR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연산 3만5000톤 규모의 증설 물량이 올해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서 생산능력 확대 효과도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SSBR은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낮추면서 제동력과 내마모성을 높이는 소재로 고성능 타이어에 사용된다.

탄소나노튜브(CNT)를 비롯한 첨단소재 사업도 육성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FWCNT(소수벽 CNT) 상업생산을 목표로 고객사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와 같은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며 “경영권 부담을 덜어낸 만큼 고부가 제품의 수익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에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대한항공, 60조 규모 중장기 기단 전략 구체화

미국산 항공기·엔진 구매 계약 확정  
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수송력 확대  
조원태 회장 “한·미 경제발전 연결”

대한항공이 약 60조원 규모의 미국산 항공기·엔진 구매 계획을 최종 계약으로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를 대비해 대규모 항공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거대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보잉과 공동 주최로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 103대와 GE 에어로스페이스·CFM의 예비 엔진 및 정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항공기 계약 규모는 362억달러(약 49조4000억원), 엔진 및 정비서비스는 86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전체 규모는 448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도입 기종은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다. 여기에 예비 엔진 21대와 28대 항공기에 대한 15년간 엔진 정비서비스도 포함됐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448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대미 구매 계획 최종 계약 행사에 참석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부문 사장 겸 최고 경영자(앞줄 왼쪽 두번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번 계약은 단순한 항공기 구매를 넘어 통합 대한항공의 중장기 기단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따른 수송력 확대를 앞두고 장거리 노선부터 단·중거리, 화물 부문까지 차세대 기체를 확보해 기단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미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448억달러 규모 대미 구매 계획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날 계약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보잉·GE 에어로스페이스·CFM 경영진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원태 회장은 “한·미 양국의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신뢰의 이정표”라면서 “대한항공은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CFM과 함께 쌓아온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의 교류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허태수 회장 “국내 AI 데이터센터 기술 생태계 키울 것”

〈GS그룹〉

허 회장, ‘GS벤처스 테크데이’ 참석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관련 기술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GS벤처스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2026 GS벤처스 테크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AI 데이터센터를 주제로 열렸다. GS벤처스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6곳을 포함한 스타트업 7곳이 전력·메



모리·냉각·구축·운영 분야의 기술을 소개하고 GS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허태수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GS에너지, GS칼텍스, GS건설, GSE&R, GS글로벌 등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허태수 회장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AI 데이터센터의 기술적 병목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GS와 스타트업

의 접점을 넓혀 국내 AI 데이터센터 기술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과 데이터 처리 병목을 줄이는 CXL(Compute Express Link) 기반 지능형 메모리 기술을 발표했다. 이후 GS 계열사 사업 담당자와 참여 기업 간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AI 데이터센터 사업 전담 법인인 GSAI인프라의 도현수 대표와 실무진도 참석해 기술검증과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원관희 기자

###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가정·산업 ‘에너지 절감 솔루션’ 총망라

삼성전자 AI DC 냉각 솔루션 공개  
LG전자 히트펌프 보일러 등 전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히트펌프와 고효율 가전 등을 앞세워 가정부터 산업 현장까지 에너지 저감 솔루션을 선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 양사는 냉난방공조(HVAC)와 생활가전,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각각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약 270㎡ 규모의 단독 전시관에서 주거용 히트펌프부터 AI 데이터센터와 대형 상업시설용 공조 솔루션까지 에너지 관련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

전면에는 하나의 실외기로 냉방·난방·급탕을 통합 제공하는 주거용 히트펌프 솔루션 ‘EHS 올인원’을 배치했다.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 봄·가을철 급탕 등 계절별 사용 시나리오와 함께 스마트싱스 기반 원격 모니터링 및 기업 간 거래(B2B) 통합 관리 기능을 선보인다.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EHS 히트펌프 보일러’도 전시한다. 최근 정부가 난방 전기화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를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대체하려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히트펌프와 생활가전, 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LG 써마브이 히트펌프 보일러’는 공기열을 활용해 투입 전력 대비 약 4~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제품이다. LG전자는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대비 에너지



삼성전자 모델이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삼성전자 부스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 ‘EHS 올인원’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모델이 ‘LG 써마브이(LG Thermal V) 히트펌프 보일러’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비용을 약 40~6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냉난방공조 부문에서는 ‘LG 휘센 AI 오브젝트랙션 타워 I 에어컨’과 ‘LG 멀티브이아이’, ‘LG 휘센 AI 시스템에어컨’, 폐열을 회수하는 ‘LG 프리미엄 환기 플러스’ 등을 전시한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과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워시콤보와 워시타워, 건조기 등을 소개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비전력을 99% 이상 줄인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와 대기모드 소비전력을 0.5W 이하로 낮춘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전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SK이노, 에너지 생산-운영 전 과정 연계

인텔리전트 파워 플랜트 등 전시

SK이노베이션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소형 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를 결합해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생산과 저장, 공급, 운영 기술을 AI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공개한다.

통합 솔루션은 재생에너지와 BES S, SMR, LNG 열병합 발전을 고객의 전력 수요에 맞춰 조합하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생산부터 운영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 기반을 확대하

고 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 파이프라인은 약 5.3GW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은 SK온의 BESS로 보완한다. SK온은 예측 기반 배터리 관리 기술로 안전성을 높이고 팩 단위 설계를 적용해 전력 운영 효율과 시스템 확장성을 강화했다. SMR과 LNG 열병합 발전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도 확보한다. SK는 미국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LNG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을 함께 공급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에너지원을 AI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시장에서는 AI 기반 ‘인텔리전트 파워 플랜트(Intelligent Power Plant)’를 비롯해 SK텔레콤의 ‘AI 팩토리(AI Factory)’,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함께 선보인다.

/원관희 기자